

민주 광주·전남 당권주자가 안보이다

6·9 전대 지도부 출마자 전무 사태 우려 “과감한 정치 도전 역량있는 인물 키워야”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단 한 명도 지도부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서 차기 당권 및 최고위원에 도전할 만한 중량감 있고 인지도 높은 주자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6·9 전당대회를 앞두고 머리를 맞대는 지혜와 함께 과감한 도전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오는 4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 이후, 곧바로 6·9 전당대회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는 당권 주자로 이해찬 당선자 등이 부상하고 있고 각 계파별로 최고위원 주자를 밀기 위한 물밑 움직임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서 당권과 최고위원에 도전할 만한 주자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당장, 당권 주자로 거론됐던 3선의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뛰어 들었다. 이에 따라, 당락에 관계없이 박 의원이 당권 및 최고위원에 도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4선의 이낙연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해 6월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진출 경쟁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을 제외하고 광주·전남지역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은 주승용, 김동철, 김성곤, 우윤근, 강기정 의원 등 5명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지역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당권 및 최고위원 도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이 이끌고 정권 창출에 나설 만한 중량감 있고 인지도 높은 주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력과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6·9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단 한 명도 지도부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6·9 전당대회에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지도부에 진출하기는 어려운 전

망”이라며 “다만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광주·전남 룩의 지명적 최고위원이 배려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9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전남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의 원활한 소통과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대표 주자를 지도부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진은 물론 초·재선 의원들이 과감한 정치적 도전에 나서 지역 정치권의 현실을 극복하고 정치적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6·9 전당대회가 지역 정치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긴밀한 소통과 과감한 도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무현이 꿈꾼 나라’ 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노무현이 꿈꾼 나라’를 주제로 열린 추모전시회에서 문재인(왼쪽)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대행이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당대표 지지도 여론조사해보니

與 남경필·홍사덕, 野 이해찬 각각 선두

여야의 차기 당대표 지지도에서 새누리당은 남경필·홍사덕 의원이, 민주통합당은 이해찬 당선자가 각각 선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19세 이상 남·여 16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30일 발표한 ‘4월 넷째 주 데일리 정치지표’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차기 대표 지지도는 6선의 친박(친박근혜)계 중진인 홍사덕 의원과 5선의 해신과 남경

필 의원이 각각 14%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무성 전 대표(8%)와 황우여 원내대표(6%), 강창희 당선자(4%)가 그 뒤를 이었다.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491명에서는 홍 의원이 19%로 1위였고, 김 전 대표 14%, 남 의원 12%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에서는 6선의 친노진영 대표주자인 이해찬 전 총리가 20%로 1위를 차지했고 김한길 전 열린우리

당 원내대표 15%, 박지원 최고위원 11%,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6%의 지지도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자 413명 중에서도 이전 총리가 31%로 가장 많았고, 김 전 원내대표 17%, 박 최고위원 15%의 순서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임의전화회거(RDD)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4%포인트이다. /이종형기자 golee@연합뉴스

민주 非朴 원내대표 주자 회동 결선투표 진출자 지원 등 합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유인태·이낙연·전병헌 후보는 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친노(친노무현)세력과 연합 논란을 빚고 있는 박지원 후보에 맞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 세 후보는 이날 회동에서 “세 사람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12월 정권교체를 기필코 이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가능한 모든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12월 정권교체가 절체절명의 과제임에도 ‘이해찬-박지원 연합’으로 국민을 식상하게 하고 당의 역동성을 억압해 정권교체의 희망을 어둡게 했다”고

비판했다. 비박 주자들은 합의문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4일 원내대표 경선이 결선투표로 이어질 경우 결선투표 진출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이날 YTN에 출연, “이미 연대는 시작됐다”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경험으로 볼 때 결선투표

를 접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박 후보들이 사실상 결선 후보 단일화에 합의함에 따라 결선 판세는 극도로 혼미한 상황에 빠져들었다. 1차 투표에서 박 후보가 과반(64표) 확보에 실패할 경우 결선투표로 이어질지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박진영에서는 박 후보가 이날 현재 50여표를 확보한 상태로 결선투표에서 역전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박 후보 측은 1차 투표에서 70표가량을 확보해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고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차 투표에 오른 분을 돕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인태 당선자도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1차 투표 전에 단일화 안 한다. 그렇게 하면 이해찬-박지원 행태 따라하는 필”이라며 “1차 투표에서 박지원이 과반 못한다. 2차 투표에서 결판 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결선 판세가 박 후보가 우위

경찰 기강해이·위장전입 추궁

김기용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김기용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내정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불살롱 황제’ 로비 파문과 경기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

건 등으로 불거진 경찰의 도덕적 해이와 무능을 질타하며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새누리당 안호재 의원은 “경찰은 안전한 판단과 부실한 대응으로 수원 살해사건을 막지 못했고, 112신고 통

화시간을 축소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또 톰황제 이경백씨에게 금품 받은 혐의도 체포된 경찰관이 10명에 달해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위장전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06년 1월 실제 살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빌라에서 주소지만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로 옮겨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김 내정자는 딸의 고등학교 입학 문제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시인한

바 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위장전입은 단골 메뉴가 됐다”며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인데, 법을 어긴 사람이 경찰 총수가 될 수 있다. 사과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정권 말기에 접어들 상황에서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 충성하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가정에서 준비 할 건강 필수 도서

어버이날 선물·직장·노인정·복지관·학교

1 18,000원	2 12,900원	3 12,000원	4 15,000원	5 15,000원	6 15,000원
7 12,000원	8 12,000원	9 12,000원	10 12,000원	11 15,000원	12 13권 15,000원/2권 14,000원

※천금출판사 (책 만들어 드림) 1~12 합계 194,900원

건강에 좋은 도서 보급문의

천금건강 주문 문의 ☎ 053)746-7733, 746-7734 / Fax 053)746-7735
010-5050-7333 / 신한은행 : 110-314-278685 임보미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함께 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